

1. 고려의 건국(918, 연호 천수)과 개혁 정치

(1) 태조의 정책

민족 융합 정책	• 사십관 제도(신라 경순왕), 상부(견훤, 양주 ⇒ 식읍), 발해 유민 포섭
민생 안정책	• 취민 유도 : 과도한 수취 금지, 조세 감면(수확량 1/10), 흑창 설치
호족 통제 정책	• 회유정책 : 정략결혼, 사성정책, 호족의 중앙관리 임명, 역분전 지급 • 견제정책 : 사십관 제도(회유+견제), 기인 제도(상수리 제도 모방 ⇒ 견제)
왕권 안정책	• 관리 규범과 정책 방향 제시 : 정계, 계백료서, 훈요 10조
북진 정책	• 고구려 계승 의식,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개발 • 국경선 확장(태조 말) : 청천강 ~ 영흥만 •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사건(萬夫橋事件, 942)
문화 정책	• 숭불정책(훈요10조 제1항), 풍수지리설(훈요10조 제2항)

(2) 광종의 개혁 정치

왕권 불안정	• 혜종 · 정종 : 정략결혼의 부작용, 왕위 쟁탈전 발생 • 왕규의 난(945) 진압 ⇒ 정종 즉위 ⇒ 서경 천도 계획 실패
노비안검법 (956)	•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 ⇒ 호족의 세력 기반 약화 • 조세 · 부역을 담당하는 양인의 증대 ⇒ 국가의 재정 기반 확충, 왕권 안정
관거제 (958)	• 쌍기의 건의 수용, 공신 · 호족 자제의 우선 등용 억제 • 유학에 능한 신진 관료의 등용, 신구 세력의 교체 도모
왕권 강화	• 공신과 호족 세력 숙청 • 공복 제정 : 지배층의 위계질서 확립, 자(紫) · 단(丹) · 비(緋) · 녹(綠) •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광덕, 준풍) 사용, 개경→황도, 서경→서도 • 주현공부법 실시 : 지방 호족 통제, 국가 수입 증대
불교 정책	• 왕사 · 국사 제도 정비, 승과 제도 실시 • 불교 장려, 불교 통합 시도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

956년(광종 7)에 실시한 노비안검법은 후삼국 시대의 혼란기에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조사하여 양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한 법이다. 안은 살필 按, 검은 교정할 檢으로 노비를 살펴 원래 노비가 아니었던 자를 본래의 신분으로 올바르게 고쳐준다는 뜻이다.

(3) 성종 - 유교적 정치 질서의 강화

유교 정치사상	• 신라 6두품 출신의 유학자 국정 주도(최승로) : 시무 28조 수용 • 유교 정치 이념 채택 • 유교 교육 진흥 : 국가감 정비, 지방에 경학박사·의학 박사 파견
통치 체제정비	• 중앙 통치 기구 개편 : 당의 3성 6부제 기반 → 2성 6부제 : 송의 관제 수용 → 중추원·삼사 : 독자적 기구 → 도병마사·식목도감 설치 • 지방 : 12목 설치 ⇒ 외관 파견(983), 향리 제도 마련 ⇒ 중앙 집권 강화 • 군사기구 설치 : 중앙군(6위 설치), 지방군(당의 부병제 모방, 병농 일치의 의무병제 실시)
사회·경제 정책	• 빈민 구제 시설 : 의창 제도 마련, 상평창 설치 • 노비환천법(奴婢還賤法) : 노비안검법의 재검토 ⇒ 노비 환천

최승로의 5조정적평(五朝政績評)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만약 광종이 차음과 같이 늘 공손하고 아끼며 정사를 부지런히 하였다면, 어찌 타고난 수명이 길지 않고 향년 50으로 그쳤겠습니까? 마침내 잘하지 못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경신년(광종 11)부터 을해년(광종 26)까지 16년간은 간사하고 흉악한 자가 다투어 나아가고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용납되지 못하고 소인은 뜻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상하가 마음이 다르고, 군신이 서로 갈렸습니다. 옛 신하와 장수들은 잇달아 죽음을 당하였고, 가까운 친척이 다 멸망을 하였습니다.

- 「고려사」

시무 28조의 의미

• 국왕이 백성을 다스림은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군현에 수령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임으로 인하여 일이 번거로워 시행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청컨대 외관(外官)을 두소서. 비록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곳의 주현에 1명의 외관을 두고, 그 아래에 각각 2~3명의 관원을 두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

- 「고려사절요」

•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土性)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禮樂)·시서(詩書)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려사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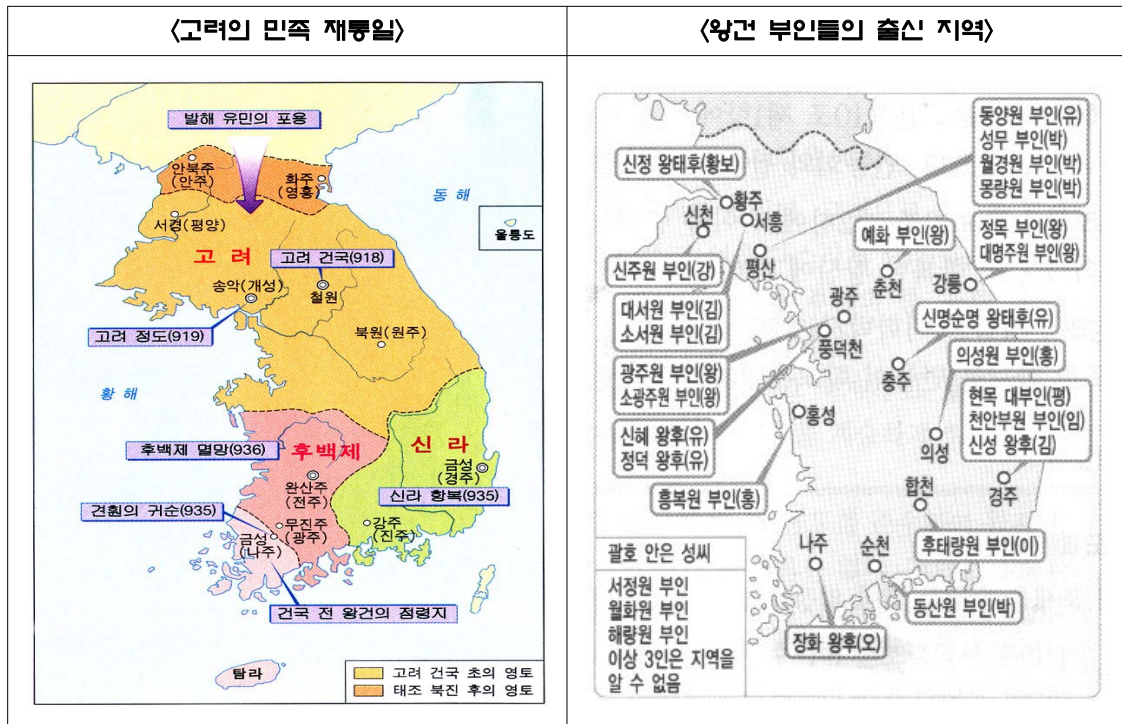
시무 28조(현존 22조)의 개관

- 국방문제
: 서북 변경의 수비 강조 ⇒ 북계의 확정과 방어책
- 불교 폐단
: 불교는 수신의 도요, 유교는 치국의 본이라 하여 불교 행사의 감축을 주장
: 불교 교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되는 폐단을 지적
⇒ 연등회, 팔관회 행사의 축소와 우인(偶人)의 조성에 따른 민폐 시정
: 승려의 횡포 엄금, 승려의 궁정 출입 금지
- 엄격한 유교적 신분 질서
: 양천지법(良賤之法)의 확립을 통한 엄격한 신분제도의 유지와 삼한공신과 세가(世家)의 자손들에 대한 관직 제수를 건의
- 왕권과 신권의 조화
: 광종과 같은 전제군주 반대, 시위 군졸의 축소 건의, 대간제도
- 중앙집권적 정치형태 구상
: 외관 파견 건의, 지방 호족 세력의 억제(향리 제도 정비)
- 제도 개혁과 중국 문물의 수용 문제
: 중국의 제도는 수용하되 그 밖의 거마·의복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강조
- 공역 균등·관복의 제정

(4) 현종·문종의 업적

현종 (1009~1031)	• 지방제도 개편 : 5도 양계·4도호부·8목, 군현제 완비 • 중앙군 : 2군 설치(왕의 친위부대) ⇒ 2군 6위의 중앙군사제도 완성 • 거란의 2차 침입 후 초조대장경 조판, 7대 실록 편찬 • 주현공거법(州縣貢舉法) 실시 : 향리자제의 과거 시험 허용 • 연등회, 팔관회의 부활
문종 (1046~1083)	• 공음전시과(경정전시과) 실시 : 전시과 제도 완성 • 동·서 대비원 설치 : 개경, 빈민 환자 치료 • 사학의 진흥(최충의 9재 학당 등 사학 12도) • 흥왕사 건축

고려의 건국과 개혁 정치



〈훈요 10조와 그 의미〉

제1조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호위하는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건하고 주지를 보내 분향하며 도를 닦고 각각 그 업을 다스리게 하라.(**승불 정책**)

제2조 모든 사원은 다 도선이 산수의 순역을 가리고 점쳐서 개창한 것이다. 후세의 왕, 공후, 후비, 조신들이 함부로 더 사원을 창건하는 것을 경계하라.(**풍수지리설 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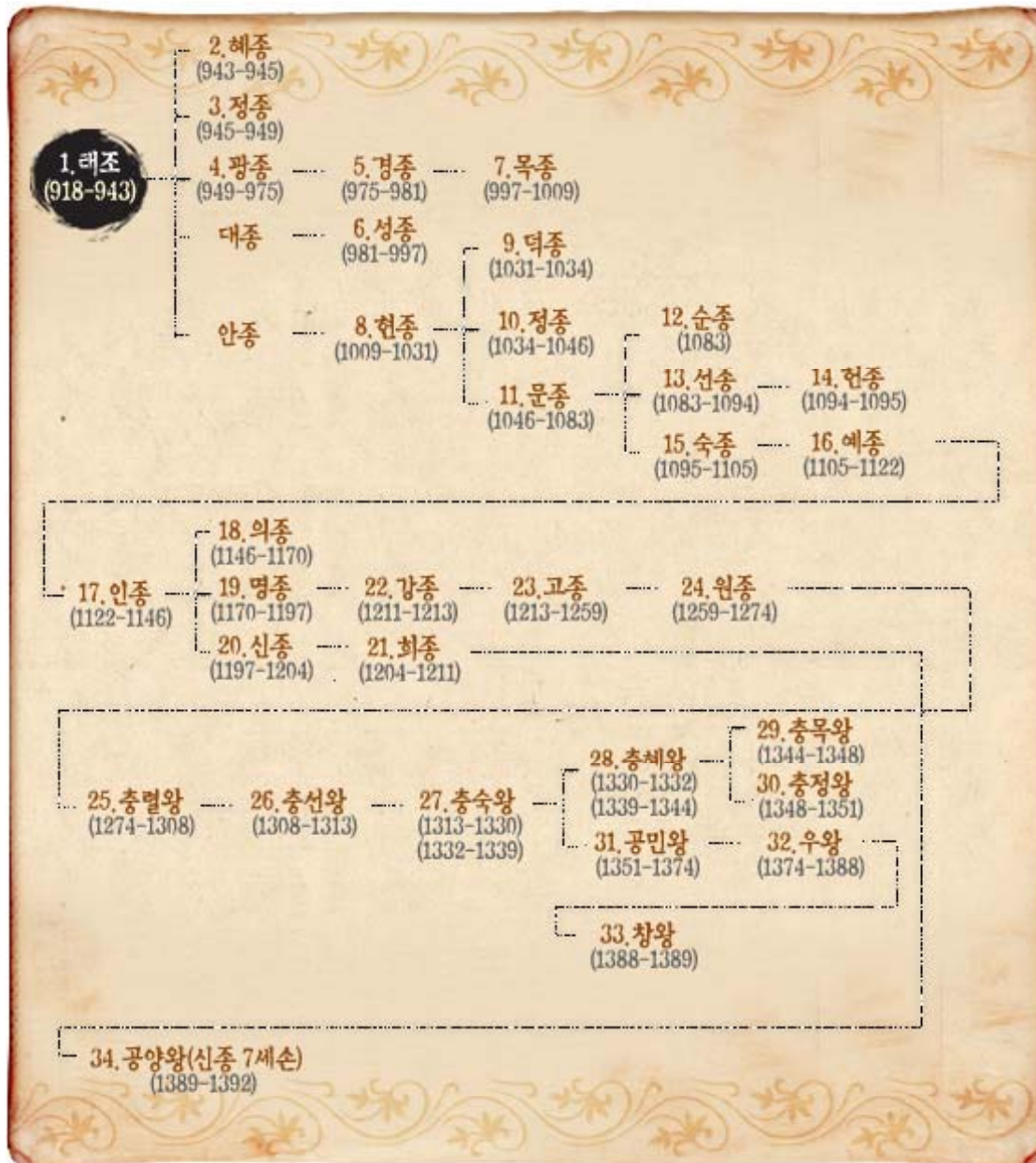
제4조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중국의 풍속을 경모하여 문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지만, 나라와 풍토가 다르고 인성이 틀리니 반드시 구차스럽게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어서 풍속이 같지 않고 언어도 다르니 의관과 제도를 본받지 말라.(**자주적 모습**)

제5조 짐은 삼한 산천의 숨은 도움에 힘입어 대업을 달성하였다.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이 되며,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마땅히 춘하추동의 중간 달에는 100일 지나도록 머물러 안녕을 도모하도록 하라.(**북진정책의 의지 표현**)

제6조 짐이 지극히 바라는 바는 연등과 팔관에 있으니,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바이요, 팔관은 천령과 오악, 명산, 대전, 용신을 섬기는 바이다. 후세에 간신이 가감을 건의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금지시키도록 하라.(**종교적 관용 정책**)

제8조 차현(금강) 이남, 공주강(차령산맥) 밖은 산형과 지세가 모두 등지고 거역하고 있으니 인심도 그러하다. …중략… 비록 선량한 백성일지라도 마땅히 벼슬을 주어 일을 보게 하지 말라.

제10조 경사를 널리 읽어 옛 일을 거울로 삼을 것.



〈태조 왕건의 고려 건립 이후 500년 동안 고려를 이끌었던 왕실 계보〉

고려 의종(18대, 1146~1170)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에 처음으로 고려 왕실의 계통이 기록되기 시작하여 오늘날 족보로 이어졌다. 『고려사』를 보면 고려시대 양반 귀족은 그 씨족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고, 제도적으로 종부시(宗簿寺)에서 족속의 보첩을 관장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도 계보를 기록 보존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 통치 체제의 정비

(1) 중앙 정치 조직

중서문하성	최고 관서, 장관(문하시중), 국정 총괄, 재신(2품↑) + 낭사(3품↓)
상서성과 6부	• 실질적 행정 담당 부서, 상서 ⇒ 장관 • 이부(행정), 병부(국방), 호부(재정), 형부(법률), 예부(외교 · 교육), 공부(건축)
중추원	추부(추밀, 2품↑, 군사기밀 관장) + 승선방(승선, 3품↓, 왕명의 출납)
삼사	송의 제도 모방, 화폐와 곡식의 출납 담당
어사대	시정 논의, 풍속 교정, 백관의 부정과 비위를 규찰 · 탄핵
재추원의	• 재신과 추밀이 모여 국가 중대사 결정 • 도병마사(국방⇒국정 전반 담당), 식목도감(법의 제정 및 각종 시행 규정)
대간(대성)	•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 • 서경 · 간쟁 · 봉박권 행사 •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룸
중방	• 상장군 + 대장군, 무관들의 최고 군사 회의 기구

(2) 지방 행정 조직의 정비

기본 조직 (이원적)	• 정비과정 : 12목(성종) ⇒ 3경 4(→5)도호부 8목(현종) ⇒ 5도 양계(현종) • 5도 양계 - 3경 5도호부 - 주 · 군 · 현 • 5도 : 일반 행정 단위, 안찰사 파견(상설 행정 기구 없음) • 양계 : 국경 지대에 설치, 병마사 파견, 군사적 특수 지역
특수 조직	향 · 부곡 · 소
특징	• 속현 : 주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앙 정부의 통제를 받음, 주현 < 속현 • 향리 :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 등 실제적 행정 사무 담당 • 호족 세력이 지배 체제 정비 과정에서 향리로 편제됨 • 지방의 실질적 지배권 장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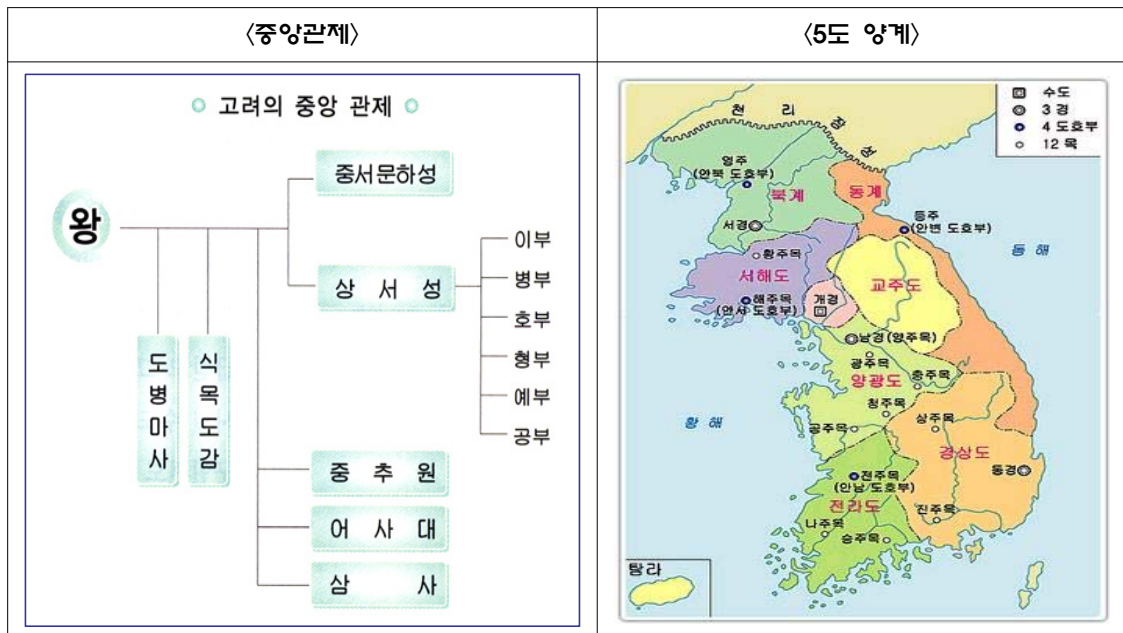
(3) 군역 제도와 군사 제도

중앙군	• 구성 : 2군(국왕의 친위 부대) + 6위(수도 경비, 국경 방어) • 성격 : 직업 군인(군인전 지급, 역의 세습) • 신분 : 종류층
지방군	• 구성 : 주진군(양계, 국경 수비, 상비군) + 주현군(일반 군현, 향토예비군) • 대상 :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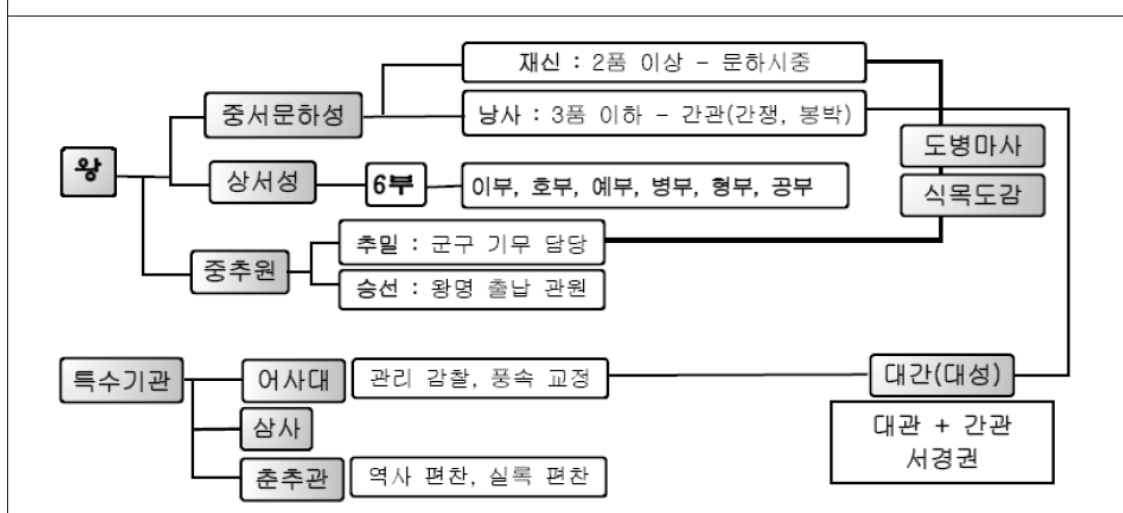
(4) 관리 등용 제도

과거	- 구성 : 제술과(문학, 정책), 명경과(유학 경전), 잡과(실용 기술학), 승과 - 대상 : 원칙 - 양인 이상 응시 가능 : 실제 - 제술·명경과(귀족과 향리 자제가 응시), 잡과(백정 농민 응시) - 의의 :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등용 ⇒ 능력 중시 - 좌주(과거를 주관하는 책임자)와 문생(학자 밑에서 배우는 자)
음서	- 정의 :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는 혜택 - 대상 : 공신·종실의 자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손 - 의의 : 고려 관료 체제의 귀족적 특징

통치 체제의 정비



〈고려의 중앙관제 도표식 정리〉



1.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과 동요

(1) 문벌 귀족 사회의 성립

시기	성종이후
출신	호족 + 6두품 계열의 유학자
정치적 기반	과거와 음서 ⇒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직 장악
경제적 기반	과전과 공음전, 불법적으로 개인이나 국가의 토지 차지 ⇒ 대토지 소유
사회적 기반	- 비슷한 부류끼리 중첩된 혼인 관계 형성 ⇒ 폐쇄적 통혼권 -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외척으로서 정권 장악
성격 변화	- 초기 : 개혁적, 자주적, 개방적 성격 ex) 최승로 - 중기 : 보수적, 사대적, 폐쇄적 성격 ex) 김부식

(2) 이자겸의 난(인종 4년, 1126년)

배경	- 왕의 외척인 경원 이씨(이자겸) 일파의 정권 장악 - 권력 독점에 반대하는 왕의 측근 세력의 반발
전개	이자겸과 척준경의 난 ⇒ 척준경의 이자겸 제거 ⇒ 척준경 탄핵
결과	중앙 지배층 사이의 분열 ⇒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 촉진

(3)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인종 13년, 1135년)

배경	보수적 문벌 귀족(개경파 - 김부식) Vs 지방 출신의 개혁 관리(서경파 - 묘청)
전개	묘청 일파의 급국 정벌, 칭제 건원 주장 ⇒ 김부식 등 서경 세력의 반발 ⇒ 묘청 등이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개라 하여 난을 일으킴 ⇒ 김부식에게 진압
결과	- 문벌 귀족 사회 내부의 분열과 지역 세력 간의 대립 - 풍수지리설이 결부된 자주적 전통 사상과 사대적 유교 사상의 충돌 - 고구려 계승에 대한 견해 차이

(4) 무신 정변

배경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의종의 실정, 하급 군인에게 군인전 미지급
전개	이의방 → 정중부 → 경대승 → 이의민 → 최충헌
무신 정권	무신의 대토지 소유와 지방 통제력 약화 →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
최씨 무신 정권	권력 기반 : 교정도감, 도방, 삼별초, 정방, 서방 4대 60여 년간 유지(최충헌 → 최우 → 최항 → 최의)

이자겸의 난(1126)

…… 내시 김찬과 안보린 등이 왕을 시종하면서 왕의 뜻을 알고 이자겸을 체포하여 귀양 보내고자 하였다. …… 먼저 척준신과 척준경의 아들 척순 등을 죽여 시체를 궁성 밖에 버렸다. …… 척준경이 수십 명을 데리고 주작문에 도착하였다.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궁성을 넘어 들어가 자물쇠를 부수고 신봉문 밖에 이르러 고함을 질렀다. …… 척준경이 침전 좌측 문에 들어서니 별장 이작과 장군 송행충이 칼을 뽑아 들고 나왔다. 척준경이 물러나면서 외쳤다. ‘안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죽여라!’ 밤에 왕이 산호정에 갔는데 시종은 도망가고 근신 임경청 등 10여 명만이 있었다. 왕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여 이자겸에게 편지를 보내어 선위(禪位)하겠다고 하였다.

왕이 어느 날 홀로 북편 담으로 가서 한참동안 하늘을 보고 통곡하였다. 이자겸은 심팔자가 왕이 된다는 비기를 믿고 왕위를 찬탈하려 하였다. 떡에 독약을 넣어 왕에게 드렸지만 왕비가 은밀히 왕에게 알렸다. 떡을 까마귀에게 던져 주자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시 독약을 보내고 왕비더러 왕에게 드리게 하였다. 왕비가 걸려 넘어지는 체하며 옆질러 버렸다. 왕비는 이자겸의 넷째 딸이었다.

신채호의 서경천도운동 인식

그러면 조선 근세에 종교나 학술이나 정치나 풍속이나 사대주의의 노예가 됨은 무슨 사건에 원인하는 것인가. …… 나는 한마디 말로 회답하여 말하기를 고려 인종 13년(1135) 서경천도운동 즉 묘청이 김부식에게 패함이 그 원인으로 생각한다. …… 묘청의 천도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사(王師)가 반란한 적을 친 것으로 알았을 뿐인데 이는 근시안적인 관찰이다. 그 실상은 낭가(郎家)와 불교 양가 대 유교의 싸움이며, 국풍파(國風派) 대 한학파(漢學派)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며, 진취사상 대 보수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이겼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인 유교사상에 정복되고 말았다.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일천년래 제일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사건>

무신 정권의 변천

연대	명종 (1170)	명종 (1179)	명종 (1183)	명종 (1196)	고종 (1219)	고종 (1249)	고종 (1257)	고종 (1258)	원종 (1268~70)
집권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	김준	임연, 임유무
정치	중방	도방	중방	교정도감 도방	교정도감 · 정방 · 서방 · 삼별초			교정도감 정방	교정도감 정방
성격	무인연합정치		1인 독재정치(62년간)					무인정권의 최후	

Ⅲ.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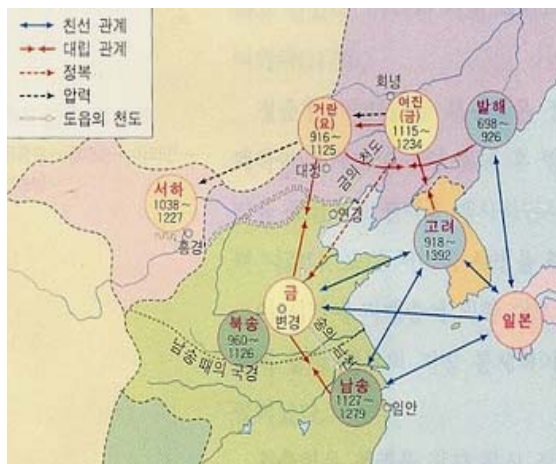
대외 관계와 고려 후기의 정치 변화

1. 대외 관계와 고려 후기의 정치 변화

(1) 대외 관계의 변화

11세기 (거란)	- 고려의 기본 정책 : 친송 · 북진 정책, 거란에 강경 대응(정종, 광군사 조직) - 거란의 1차 침입(성종, 993) : 서희의 담판 외교 ⇒ 강동 6주 획득 - 거란의 2차 침입(현종, 1010) : 강조의 정변 계기, 양규의 선전 - 거란의 3차 침입(현종, 1018) : 강감찬의 귀주 대첩 - 결과 : 고려 · 송 · 거란의 세력 균형 유지 : 개경에 나성 축조, 친리 장성 축조(압록강 어귀~도련포)
12세기 (여진)	- 고려의 기본 정책 : 회유 · 동화 정책(경제적 지원) - 여진족의 통합과 고려 침입 - 윤관의 별무반 편성 ⇒ 여진 정벌(예종, 1107), 동북 9성 축조 ⇒ 여진 반환 - 금 건국 후 사대 관계 요구 ⇒ 이자겸의 수용 ⇄ 묘청의 난
13 ~ 14세기 (몽고)	- 배경 : 칭기즈칸에 의한 몽고족 통일, 만주 진출, 금 공격 - 몽고와 첫 접촉 : 거란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접촉(강동의 역) - 몽고의 거듭된 침입(8차) : 대몽 항쟁 - 강화천도, 팔만대장경, 민중의 저항 - 몽고와 강화(원종) : 온건파 득세, 무신 정권 붕괴, 개경 환도(1270) - 삼별초의 항쟁 : 강화도 → 진도 → 제주도
14세기 (홍건적, 왜구)	신흥 무인 세력의 성장 ex) 최영, 이성계

고려의 대외 관계



〈10~12세기 동아시아의 외교 관계〉



〈거란의 침입〉

(2)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

원의 내정 간섭	• 권문세족의 대두 • 일본 정벌 동원 : 인적·물적 징발 강요 ⇒ 두 차례 모두 실패 • 영토 강탈 : 쌍성총관부(철령 이복) → 공민왕 수복 : 동녕부(자비령 이복), 탐라총관부 → 충렬왕 때 반환 • 관제 격하 : 왕명 - ○조(祖), ○종(宗) → 충(忠)○왕(王) : 중앙 관제 - 1부 4사(2성→첨의부, 6부→4사), 중추원→밀직사 • 내정 간섭 : 정동행성 존속(중심 - 이문소), 다루가치 파견, 만호부 설치 • 공녀, 공물의 징수 → 결혼도감, 응방 • 몽고 풍속의 유행 : 몽고풍
공민왕의 개혁 정치 (1351~1374)	• 배경 : 대외 - 원·명 교체기, 대내 - 권문세족의 폐해 심화 • 반(反)원 자주화 정책 : 친원세력 숙청(기철), 몽골풍의 폐지 : 정동행성 이문소 폐지, 관제 복구(1부 4사 ⇒ 2성 6부) : 쌍성총관부 공격·수복 → 요동 지방 공격 • 왕권 강화의 개혁 정치 : 정방 폐지, 과거제 정비(→ 신진사대부 등용) : 성균관 재정비 → 순수한 유학 교육기관으로 개편 : 전민변정도감 설치(신돈) - 농장 혁파, 노비의 양인화 • 결과 : 권문세족의 반발과 신진 사대부의 세력 미약으로 실패
신진 사대부	• 출신 : 하급 관리이거나 지방의 향리 출신 • 경제적 배경 : 중소 지주, 향촌사회에서 사회적 영향력 행사 : 농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지 획득 • 학문적 배경 : 성리학 → 사회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와 명분 획득 : 불교 비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비판 • 등용되기 시작한 시기 : 무신 정권 → 무신들의 부족한 학문과 행정 능력 보완 • 본격적 정치 활동 시기 : 공민왕 • 성장 : 신흥무인세력과 정치적 협력 • 정치적 실권 획득 : 위화도 회군(우왕 14년, 1388) • 신진사대부의 분화 : 온건파 - 대다수의 사대부, 왕조 유지, 점진적 개혁, 정몽주·이색 : 혁명파 - 왕조 자체의 교체 ⇒ 역성혁명(逆姓革命) 추구, 정도전·조준
고려의 멸망 (1392)	• 배경 : 대내 - 공민왕의 개혁 실패 → 권문세족의 비리 심화 : 대외 -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 • 과정 : 최영의 정권 장악 ⇄ 개혁 방향을 두고 이성계와 갈등 : 명의 철령위 설치 요구 → 최영의 요동 정벌 시도 :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 정권장악 ⇒ 과전법 실시 ⇒ 조선 건국

